

2) 우리가 일상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방식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늘 생명의 본질에만 마음을 두기도 힘듭니다. 그런 긴장된 삶은 우리의 영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풀어질 때는 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단순한 놀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상은 궁극적으로 매 순간 양자택일 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에서만 양자택일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매일 TV 통속 드라마나 홈쇼핑만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자연 다큐나 과학과 인문학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는 어린이가 있고, 톨스토이 동화를 읽는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거리를 좁히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죽음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입니다.

3) 앞에서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의 설교가 일상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기에 바쁩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전화 통화하기에 바쁩니다. 발도 불편하고 배도 곱습니다. 그걸 참지 못합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해서 씻고 맛있는 식사를 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걷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발이 불편하고 배고파도 그것 자체를 걷기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렇게 길을 걷는 그 순간이 생명 충만입니다. 똑같이 길을 가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거나 몸이 피곤한 일로, 또는 외로움으로 생명 충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두 발을 딛고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4)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유혹의 땅입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땅입니다. 그곳 토착 젊은이들은 성적으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유혹을 받아서 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미리 내다본 것일까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늙었다는 핑계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아무도 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서울센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3년 2월19일

예수 변모 주일
세계 교회력 「가」해 13주



라파엘로가 '예수 변모'(Transfiguration)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의 일부(상부)이다. 아랫부분에는 뇌전증 걸린 아이를 둘러싼 내용이다. 라파엘이 그림을 끝내지 못하고 죽자 제자 로마노가 완성했다고 한다.

로마 바티칸 회화관 소장. (반더빌트 대학교 신학대학 도서관 사이트에서 퍼옴)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공부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http://dabia.net/xo/churchs>

주일공동예배순서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이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생명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영혼의 참된 만족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모든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1, 2, 3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며, 마지막 때 고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온 영혼을 기울여 찬송과 기도를 바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본질로 갖고 계셨지만/ 사람의 고난과 시험과 무능력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절망과 고독의 끝자락인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살이에 닥치는 고난과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두려워하더라도 그 두려움에 굴복 당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을 겪는 이들과 연대하는 길을 찾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죄와 허무와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영광송) ... 다 함께

이강민

영 - - - - - 광 영 광 영 - 광 영 - - 광
 영 - - - - - 광 높 이 계 - 신 주 - 계

[알리는 말씀]

* 변모 주일- 오늘은 예수 변모(Transfiguration) 주일입니다.

이를 주제로 하는 영화는 많습니다. 주보 표지 그림이 승천 장면처럼 보이겠으나 실제로는 예수 변모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변모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변모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오는 22일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이고 26일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 예배 후 데칼로그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3월에는 정목사님께서 둘째 주에 오십니다.

* 지난주일(2월12일) 헌금: 560,000원(주일헌금 330,000원 통장헌금 230,000원)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2, 3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 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장소
2월19일	박재진목사	이유선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김희란 /아트컬리지5
2월26일	김동호목사	고중흥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양혜선,이유선 /아트컬리지5
3월5일	김동호목사	오미영집사	이기령집사 양혜선집사	이기령,박정덕 /시청각실

지난주일(2월12일) 설교 발췌

제목: 양자택일 (신 30:15~20)

1) 이런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에 이미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더 발전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가나안 원주민들은 한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명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철기 문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더 고급스러운 문명이라 할 인근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그야말로 신천지와 같았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멋지게 살게 되리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와서 느꼈을 법한 꿈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들의 세계관을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평 한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드린 주현 후 일곱 번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생명의 신비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공홀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칠고 무기력하며, 때로는 영악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하거나 왜곡시킬 때가 많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무기력합니다. 많은 것을 오해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을 확장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정작 근원적인 것을 소홀하게 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개인 참회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 선포

목사: 우리의 주님은 자비와 긍휼함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함에 의지해서, 그리고 2천 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룩하 - 시 다 거룩하 - 시 다 거룩하시도 - 다
만군의 주 하 - 나 님 하늘과 땅 - 에 가 - 득한그영광
높은 데 에 호 - 산 - - - 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 여
찬 양 받 으 소 - 서 높은 데 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No Room H. M. Day

1. 오 예수님 내 맘에 오 - 소 서 기쁘게 맞 으 리 - 이
 2. 오 예수님 문 밖 에 기 다 리 네 왜 아 니 모 시 나 - 네
 3. 오 주 님 이 간 곡 히 권 하시 네 네 마 음 문 열 라 - 너
 O Lord, in my heart there's a welcome for Thee. Gladly I now would say, - Come

죄 인 의 마 음 과 생 활 속 에 오 소 서 내 주 여
 문 문 을 단 단 히 잠 가 두 고 왜 아 니 모 시 나
 위 해 죽 은 나 를 박 대 말 고 네 마 음 문 열 라
 in, blessed Saviour, my heart and my life Hence forth would own Thy sway.

주 님 을 문 밖 에 세 워 뒀 던 더 러 운 내 맘 을 - 주
 Long hast Thou wait- ed and long knocked in vain Outside my heart's closed door; Oh,

예 수 님 오 서 서 사 하시 고 길 이 함 - 께 하 소 서 -
 cleanse me from sin, then, dear. Lord, enter in And dwell there for- e- ver more. -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아무도 그 말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이끌어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출애굽기 24:12~18 ... 이유선 집사

성서교독 시편 2:1~12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어찌하여 나라들이 힘을합쳐 분노하고/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일을 꾸미는가
 -세상임금 통치자들 앞장서서 음모꾸며/ 하나님을 거역하여 대적하자 말들하네
 사슬끊고 멍에벗어 내던지자 말하지만/ 하나님이 웃으시리 비웃으며 호령하리
 -크신분노 터뜨리고 큰소리로 호통치리/ 거룩한산 시온성에 나의왕을 세웠노라
 명심하여 들을지라 주님명령 전하노라/ 오늘로써 너는나의 큰아들이 되었으니
 -이땅부터 저땅까지 유산으로 줄것이며/ 질그릇을 부수듯이 열방들을 심판하리
 임금들아 통치자야 지혜교훈 배우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차하면 주님진노 지체없이 이르지만/ 주님께로 피하는자 모두복을 받으리라

둘째말씀 베드로후서 1:16~21 ... 이유선 집사

*셋째말씀 마태복음 17:1~8 ... 이유선 집사

*응답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예수는 빛이다 ... 박재진 목사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찬송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1, 3절 ... 다 함께